

#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에 따른 영향 연구\*

—학습자 모국어에 대한 숙지도(熟知度)를 중심으로—

제 효 봉 · 장 배 흔

## Abstract

**Qi Xiao-feng & Zhang Pei-xin.** 2017. 9. 30. **A Study on the Effect of Rater's Language Background in Korean Writing Test -Centered on Raters' Familiarity with L2 Learner's Native Language-**. *Bilingual Research* 68, 173-208. The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raters' language background on their rating. The raters in the resear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Chinese Han group (CC), China Korean group (CK), Korean raters who are familiar with Chinese (KC) and who are not (KK). First, by Multi-facet Rasch Measurement, the result showed that raters show greater difference in severity when rating organization compared with grammar.

Then, the comparison of ratings within groups was ma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rating grammatical item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was found. However the interview after the research showed that some raters were actually influenced by their language background. In rating organization part, different results appeared. When examining all the items, there was no difference. But when the item "the overall organization" was examine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nese raters (CC+CK) and Korean raters (KK+KC). And the difference existed between CC and KK as well. It can be seen that raters' L1 does bring influence on the item rating. Besides, the ratings between KK and KC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urther improved by the subjective statements and interview, it can

---

\* 본 연구는 제18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be seen that for Korean raters their native language still plays a decisive role in rating.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Xiamen University)

**【Key words】** Korean Writing Test(한국어 쓰기 평가), Rater's Language Background(채점자의 언어적 배경), Learner's Native Language(학습자의 모국어), Effect(영향), L1(제1언어), L2(제2언어)

## 1.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가 한국어 학습자(즉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모국어 영향 관계가 뚜렷한)을 평가할 때, 채점자의 언어 배경이 그 평가 과정에 끼친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채점자의 언어 배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원어민(native speaker) 채점자와 비원어민(non-native speaker) 채점자라는 도식에 기초한다. 이 같은 시각의 중심에 존재하는 목표어는 다름 아닌 ‘학습자의 목표어’, 즉 한국어다. 따라서 원어민 집단과 비원어민 집단이라는 채점자의 언어 배경에 따른 접근 방식에서는 채점자의 한국어 숙달 정도가 중시된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 즉 중국어를 채점자의 언어 배경 기준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전 연구 성과와 다르게 학습자의 모국어가 중심이 된다. 채점자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 평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배경에 따른 채점자 집단을 중국어 수준 정도로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 영역은 모국어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채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sup>1)</sup>

---

1)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듣기·말하기·읽기·쓰기라는 4가지 영역에서 쓰기가 습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왕효성(2012ㄱ, 2012ㄴ), 제효봉(2011ㄱ, 2011ㄴ, 2015), 조인욱(2013) 등에서는 한국어 고급학습자일지라도 그들의 쓰기 과정에 모국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중국 학생의 쓰기 결과물을 평가하는 채점자는 크게 중국인 채점자와 한국인 채점자 집단으로 구분한다.<sup>2)</sup> 여기서 중국인 채점자에는 한족 채점자(CC)와 조선족 채점자(CK)가 포함된다. 전자는 중국어가 모국어(L1)인 집단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이중언어 화자로 분류되는 집단이다. 한편, 한국인 채점자들은 중국어의 숙지도(또는 숙달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숙지도가 떨어진 채점자(KK)와 그것을 갖춘 채점자(KC)다.<sup>3)</sup>

## 2. 선행 연구

제2언어 쓰기 평가 방식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영어의 경우, 1970년대까지 간접적 평가(indirect testing of writing)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평가(direct testing of writing)로 점차 전환된다. 직접적 평가는 오랫동안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것은 채점자의 주관적 개입을 피할 수 없었다. 채점자 오차, 즉 채점자 사이의 점수 불일치, 그리고 채점자 자신의 채점 비일관성은 제2언어 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채점자 오차에 관한 연구는 오차의 발생 원인을 충분히 밝히기 위해, 채점 결과에 주목하던 방식에서 채점자의 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 시간, 평가 환경, 채점표, 평가중점 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평가 시간이나

2) 한국어 쓰기 평가를 담당하는 채점자에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이 포함되며, 대부분 한국어교사들이 진행한다.

3) 여기서 C는 Chinese의 약자이며 K는 Korean의 약자이다. 또한 채점자 집단과 채점자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고, 후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KK와 kk는 각각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채점자 집단’과 그 집단의 ‘개인’을 가리키고, KC와 kc는 ‘중국어를 아는 채점자 집단’과 그 집단의 ‘개인’을 가리킨다. KC의 경우에는 중국어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KK와 구분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고급 수준의 채점자만 통계한다.

평가 환경보다 채점표와 평가 증점 등이 채점자의 배경 요소와 관련된다.

많은 채점자들이 작문의 서로 다른 지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Eckes(2008)에서는 채점자의 관심 유형을 구문 주목형(Syntax Type) · 구조 주목형(Structure Type) · 정확성 주목형(Correctness Type) · 유창성 주목형(Fluency Type) 등 6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채점자들이 채점표를 각기 다르게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의 배경과 관련된다(陸遠, 2010:26 재인용).

채점자의 채점은 그들의 전공, 즉 학술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Hamp-Lyons(1991:142)에서는 수험생의 성적이 7점이나 7점 이상(9점 만점)일 때, 영어 교사(채점자)는 텍스트의 구조와 논증 방식에 주목하면서 쓰기 결과물을 전문적 내용과 결부시켜 까다롭게 평가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반대로 5점 또는 5점 이하의 수험생들에게 채점자는 그 텍스트에 설득력을 갖춘 논거가 들어있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陸遠, 2010:26 재인용). 다시 말해서, 영어 전공이라는 학술적 배경을 가진 채점자는 그렇지 않은 채점자들과 다르게 수험생의 능력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이처럼 채점자의 배경 요소는 채점자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로부터 채점자가 자신의 배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채점자의 배경 요소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배경, 학술적 배경, 언어적 배경, 직업적 배경, 성별, 채점 경력 등이다.

이 중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Kobayashi(1992), Cumming 외(2001), Shi(2001), Johnson & Lim(2009)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의 결론은 각기 다르다. Kobayashi(1992)에서는 원어민 채점자가 문법적 정확성 측면에서 더 엄격하지만 의미적 정확성과 글의 구성 측면에서는 관대하다. Cumming 외(2000)에서는 원어민 채점자가 내용, 수사 구조, 언어적 표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비원어민 채점자는 언어적 표현을

중시하고 내용과 구조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Shi(2001)에서는 원어민 채점자가 채점에 거리낌이 없으며 점수대도 골고루 분산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들은 관대함과 엄격함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과 언어 측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은 중간 점수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그들은 구조와 텍스트 분량 측면에 비교적 엄격하다(陸遠, 2010:30 재인용).

한편, 한국어 말하기 평가 영역에서도 채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향(2013)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의 교육 경험과 전공 배경이 발음 영역의 채점 결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김현아(2015)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언어 배경에 따라 원어민 채점자 집단과 비원어민 채점자 집단 사이의 채점 경향 차이를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이라는 대립 구도에 기초한다. 여기서 채점자의 언어 배경을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언어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사실 대단히 복잡다단한 기준을 요구받는다. 목표어로서 한국어라는 기준으로부터 목표에 이미 도달한(?) 원어민 채점자, 그 출발 지점인 모국어에 가까운(따라서 목표어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원어민 채점자와 한국어 학습자 사이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위치한 비원어민 채점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발전적’·‘직선적’ 시각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도달-미(未)도달’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주된 작동 원리로 기능한다.

하지만 모국어와 목표어가 아닌 중국어와 한국어라는 두 언어 간 영향 관계라는 패러다임<sup>4)</sup>으로 시각을 전환할 경우,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

4) ‘언어 간 영향(跨語言影響, crosslinguistic influence; CLI)’을 가리킨다.

라진다. 다시 말해서 목표어에 근접하는 것이 모국어 간섭의 극복이 아니라 ‘이중언어’의 완성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창출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비원어민 채점자, 원어민 채점자도 중국어와 한국어라는 두 언어의 숙지 정도에 따라 그 위상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한국어 텍스트를 중국어와 한국어 텍스트 생산 원리의 상호 영향 관계의 결과로 파악하게 되면, 채점자 역시 두 언어의 영향 관계에서 그 위상이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학습자 모국어에 대한 숙지 정도’를 기준으로 채점자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제2언어 평가 관련 연구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영어교육계에서도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sup>5)</sup>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3.1. 연구 대상

우선 평가 내용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양상으로 선정한다. 제효봉(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권 학습자 텍스트의 특징적 양상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1) 텍스트 문법<sup>6)</sup>과 2) 텍스트 구성 방식 및 표현 기법이다. 이 두 가지는 각기

5) 조인옥(2013)에서는 한국의 학술적 담화공동체의 시각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작문 특성이 한국어 작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제효봉(2011ㄱ, 2011ㄴ, 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일반적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관계를 밝힌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어 쓰기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 모국어의 숙지도(熟知度)라는 언어 배경으로부터 채점자와 채점 결과의 영향 관계를 밝히려는 본 연구의 근간에 해당한다.

6) 여기서 ‘텍스트 문법’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장 내부의 통사론적·의미론적 관계를 검토하는 일반적 의미의 ‘문법’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연속하는 문장들 간의 통사론적·의미론적 관계를 산출하는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에 주목한다. 제효봉(2015)에 따르면, 중국어권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는 모

다른 성질을 갖는데, ‘문법’ 영역은 텍스트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채점자의 판단 문제다. 반면, ‘텍스트 구성 방식 및 표현 기법’ 영역은 좋은지 나쁜지, 즉 한국어의 수사적 기법과 텍스트 구성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여기에는 텍스트의 관련 내용이 한국인 독자에게 생소함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설문지는 이 두 영역을 고려해 설계된다. 1)영역은 16개 항목으로, 텍스트 문법 가운데 ‘지시와 조응’<sup>7)</sup>, ‘연접’, ‘시제’<sup>8)</sup>를 주로 검토한다. 2)영역은 12개 항목으로, 텍스트 구성 방식과 표현 기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3항은 단락의 조직, 4~8항은 전체 글의 마무리 (조직) 방식을 평가한다. 그리고 12항은 글의 전체적 구성 방식을 평가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 가운데 글의 전개 구조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sup>9)</sup> 또한 9~11항은 내용 전개 수단의

---

국어 영향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응결장치가 다수 등장하기 때문이다.

- 7) 앞서 나온 것을 뒤에서 다시 지시(reference), 대용(substitute), 조응(anaphora)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구성과 응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개념을 한 범주 안에서 다루면서 ‘지시와 조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록 부분(설문 항목의 예시)에서 제시한 제3항은 지시의 예시이고, 제2항은 조응의 예시다.
- 8)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9:63)에 따르면, 연접(connexion)이나 시제도 문법적 응집성에 기여한다. 연접은 넓은 의미에서 문장 내용의 연결을 이른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문법적 응집성에 기여한다. 또한 ‘접속(conjunction)’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타나는데 ‘conjunction’은 접속어를 가리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 중심의 접속(conjunction)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특징인 형태적 표지가 없는 연접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연접(connexion)’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그리고 시제는 텍스트에서 일정 부분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사건으로 묶어, 여러 문장들을 시간적으로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의 응집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시제는 텍스트상에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다.(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9:64) 부록 부분에서 제시한 제6항은 연접의 예시고, 제5항과 제16항은 시제의 예시다.
- 9) 한국어능력시험 웹사이트에 공개된 쓰기 평가 기준 중 ‘글의 전개 구조’ 영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내용 전개 긴밀성이 있는가? 3)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현빈·최재찬, 2014:252 참조) 그 중에서 1)의 경우, 본 연구에서 글의 마무리 방식만을 평가 항목으로 다룬다. 왜냐하면 중국어권 학습자 텍스트에 시작 부분보다 글의 마무리 부분에는

로 사용된 수사법을 평가한다.<sup>10)</sup> 부록은 각 범주별 설문 항목에서 1개씩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1, 5, 9항, 그리고 제12항의 일부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집단별 10명씩 모두 40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거된 유효한 조사 결과는 28명(즉 28부)이다. 해당 채점자의 관련 정보는 <표 1>과 같다.<sup>11)</sup> 여기서 교육 경력은 한국어 교육

훨씬 뚜렷한 특징적인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 10) 구체적으로 조인옥(2013)·제효봉(2015)에 근거해,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적 양상 가운데 하나인 ‘의문문 활용’을 채택한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인옥(2013:378)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모국어 작문의 특성이 한국어 논설문 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속담격언/시구/문학적 표현/의문문/과도(過渡)단락’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문단 구성 기능인 과도단락(이어지는 단락)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수사적 표현에 해당한다. 한편 제효봉(2015:246)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 텍스트에 나타난 수사적 표현의 특징적 양상으로 ‘경전 어구·고사 인용, 은유법, 설문법, 배비구(排比句, Sentence parallelism)’을 제시한다. ‘의문문’ 즉 설문법이 적용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글의 제목에서 등장한다. 둘째, 한 단락 또는 몇 개의 단락의 앞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사용된다. 셋째, 논리적 글쓰기에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설문법의 구체적 형식으로는 첫째, ‘한 질문 한 대답(一問一答)’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설문 문장을 제기하고, 바로 하나의 대답 문장이 뒤따르는 방식이다. 둘째, ‘몇 개의 질문과 한 대답(幾問一答)’이다. 먼저 일련의 설문 문장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대답도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셋째, ‘연속적 문답(連續問答)’이다. 이것은 ‘한 질문 한 대답’을 연속시키는 방식으로, 내용적 압박과 주장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어 강한 논증력을 갖는다. 설문법은 중국어 텍스트 가운데 논리적 또는 설득적 텍스트라는 특정 장르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는 특징을 보인다(제효봉, 2015:236 발췌).
- 1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CC와 CK의 유효한 데이터가 KK와 KC의 그것보다 적은 이유는 CC와 CK 부분의 데이터가 예정된 시간 안에 회수되지 못했거나 회수되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라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채점자들에게 요구한 평가 내용은 상당히 많다.(전체 13장) 또한 어떤 내용(문법 영역)은 채점자에게 학생의 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어색한 부분)에 대한 표기와 수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텍스트 구성 및 표현 기법)은 채점 이외에도 그렇게 채점한 근거의 주관식 진술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들은 평가에 필요한 시간만이 아니라 난이도 면에서도 비원어민 채점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CC 채점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정 요구를 하지 않고 대신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주관식 진술 부분도 한국어와 중국어 서술을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경력을 가리킨다. 쓰기 시험의 채점 경험에는 형성 평가·성취도 평가·능력 평가 등 각종 평가 형식이 포함되지만 피채점자가 10명 이상의 경우만을 인정한다. 채점 경험은 평가 횟수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10회 이하, 10회~50회, 50회 이상으로 구분한다.

<표 1> 조사 대상의 개인 정보<sup>12)</sup>

번호	교육 경력	채점 경험	번호	교육 경력	채점 경험	번호	교육 경력	채점 경험	번호	교육 경력	채점 경험
cc1	20년	>50	ck1	18년	>50	kk1	11년	>50	kc1	4년	10-50
cc2	17년	<10	ck2	20년	>50	kk2	9년	>50	kc2	5년	<10
cc3	12년	10-50	ck3	11년	>50	kk3	6년	10-50	kc3	2년	10-50
cc4	10년	10-50	ck4	5년	10-50	kk4	5년	10-50	kc4	10년	>50
cc5	3년	<10	ck5	2년	>50	kk5	2년	10-50	kc5	1년	<10
cc6	3년	10-50				kk6	11년	>50	kc6	16년	>50
						kk7	10년	>50	kc7	10년	>50
						kk8	8년	>50	kc8	9년	>50
						kk9	5년	>50			

불구하고 일부 데이터는 예정 시간에 회수되지 못했다. 그밖에도 일부의 경우이기는 했지만 어떤 비원어민 채점자의 설문 결과는 원어민 채점자가 대신 대답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무효한 것으로 간주해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2) KC 집단 10명 채점자의 데이터가 모두 유효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KK 집단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초급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채점자 kc9와 kc10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계 대상으로 분류된 kc1, kc2, kc3, kc4의 중국어 수준은 고급이며, kc5, kc6, kc7, kc8의 중국어 수준은 중급에 해당한다. 또한 본 연구가 ‘중국어에 대한 숙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인 채점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다음과 같다. CC 집단의 경우, 채점자들의 한국어 구어 능력은 모두 고급 수준이지만, 그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대체로 cc1>cc2, cc4, cc5>cc3>cc6의 순서로 cc1가 cc6보다 훨씬 더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조선족 교사인 CK 집단의 경우, 모두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한국어의 구어 구사 능력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한국어 쓰기 능력은 대체로 ck1>ck3, ck5, ck4>ck2의 차이를 보인다.

### 3.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다. 부록인 설문지 내용의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구성 방식과 표현 기법’(이후 ‘구성·표현’으로 표기) 부분은 직접적 채점으로 5점 척도법을 적용한다. 즉 채점자가 학습자 쓰기 텍스트에 대해 1~5점, 총 다섯 개 등급으로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구성·표현 영역의 제12항을 예로 들어 보면, 채점자 cc1~cc6은 학습자의 글에 대해 각각 4점, 5점, 3점, 2점, 5점, 5점을, 채점자 kk1~kk6은 각각 2점, 1점, 3점, 2점, 3점, 4점을 주었다. 다시 말해 구성·표현 영역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채점에 해당한다.

반면, 문법 영역에서는 종합적 채점이나 분석적 채점으로도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어, 분석적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어휘, 문법, 맞춤법), 사회언어학적 격식 등을 평가 범주로 삼는다. 여기서 문법이라는 항목 전체의 점수를 알 수 있지만, 그 점수가 문장 내 문법적 양상(조사와 어미 등)에 의해 평가된 것인지, 텍스트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에 의해 평가된 것인지, 여러 언어권 학습자의 일반적인 양상에 의해 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징적인 양상에 의해 평가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 영역의 평가를 직접적 채점이 아닌 간접적인 평가 방식을 택한다. 즉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징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채점자들이 문제를 발견했는지, 발견했다면 평가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발견을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다.<sup>13)</sup> 그리고 이러한 조사와 인터뷰의 결과를 점수로 환산

13)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CC 채점자 6명, CK채점자 5명, KC 채점자 5명, KK 채점자 3명, 총19명에게 20분~40분 정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맞춰진다. 첫째, 문법 영역의 채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CC 채점자들에게는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채점과

한다.<sup>14)</sup>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1) 채점의 엄격성(severity)에 입각한 전체적 분석으로 모든 채점자(28명)이 대상이 된다. 주로 문법 영역과 구성·표현 영역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다국면 라쉬 모형을 통계적으로 적용한 FACET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채점의 엄격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진행한다. 여기서 관건은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이 채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그리고 Mann-Whitney U검증을 통계 분석법으로 활용한다.

---

채점 근거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점자들에게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는지, 외국인 학습자라는 점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채점했는지 등. 뿐만 아니라 채점자들이 수정한 내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잘못 수정된 경우, 한국어 지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중국어의 영향 때문인지 등. 둘째, 구성·표현 영역의 채점자 코멘트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채점자 코멘트를 이해할 때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이해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문법 영역과 다르게 구성·표현 영역의 평가에서 채점자가 중시하는 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학생들이 단락을 조직할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한 문장으로 한 단락을 구성’하는 현상을 채점자들에게 특정해서 언급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유도 효과가 채점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시도는 채점자가 본래 책정한 점수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점자가 전체적인 단락 조직의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만약 채점자의 중시 지점과 모국어 영향 관계가 뚜렷한 지점과 상이할 경우,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시 파악한다.

- 14) 부록의 영역 1) 제3항을 예로 들면, 여기서 평가 사항은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징적 양상 가운데 하나인 “지시부사 ‘그렇게’의 연속적 사용”(제효봉, 2015:67)이다. 부록에 제시된 것처럼 밑줄 친 부분에 ‘그렇게’가 세 번 나타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렇게’를 ‘이렇게’로 바꾸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 결과, CC 집단의 6명 채점자 중 5명이 이 부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cc1 채점자만이 두 번째 ‘그렇게’를 ‘이렇게’로 수정했다. KK 집단의 9명 채점자 중 5명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렇게’를 ‘이렇게’로 수정했다. 따라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CC 집단 5명 채점자의 평가 점수를 5점으로 환산했고,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만 발견한 cc1의 점수를 3점으로, 두 가지 문제를 전부 다 발견한 KK 집단 5명 채점자의 점수를 1점으로 환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성·표현 영역에서 채점자들이 ‘적절한지’(설문지에서 요구한)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점자들에게 그렇게 채점한 근거를 주관식 진술(코멘트)로 요구한다. 이와 함께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채점자의 주관식 진술(코멘트)과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 통계 분석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코멘트와 사후 인터뷰 과정에서 파악한 의미 있는 내용을 별도로 분석한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 4.1. 채점자 엄격성의 전체적 분석

먼저 문법 영역과 구성·표현 영역에서 각 채점자의 특성과 편향을 분석하기 위해 FACET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FACETS 프로그램이 근거로 하고 있는 다국면 라쉬 모형은 언어 수행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 도구로 채점자의 엄격성, 평가 항목이나 평가 영역에 대한 편향적 경향을 확률적으로 추적한다.”(김현아, 2015:93 재인용) 다국면 라쉬 모형을 통계적으로 적용한 FACETS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문항을 특정 채점자가 평가할 경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국면의 정보를 다음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한 평면에 제공한다.

Measr -examinees +raters		-items		ABILI	
+ 1 +	+	+ 2	+ (5) +		
		ck2			
		cc6		---	
			11		
		cc3 kc1 kk7	16 5	4	
		ck4 kc7 kk2	13		
		cc2 cc4 cc5 ck5	8	---	
* 0 * 1	* ck3 kc4 kk9	* 3	* 3 *		
		kc2 kk1 kk4 kk5	15 7 9	---	
		kc6 kc8 kk3 kk8	10 14		
		cc1 kk6		2	
		ck1 kc3	1		
			12 6	---	
		kc5			
+ -1 +	+	+ 4	+ (1) +		
Measr -examinees +raters		-items		ABILI	

<그림 1> 문법 영역의 단면 분포

Measr -examinees +raters			-items			ABILI		
+	3	+	+			+	(5)	+
			ck2					
+	2	+	+			+		+
							---	
					9			
			cc6 ck3					
+	1	+	cc1 kk9	+		+	4	+
			cc4 kc3					
			cc2 kc4 kc6 kk5 kk7					
							---	
			kk6					
			cc3 cc5 kc1 kc5 kk4 kk8		1			
			kc7 kk1		2			
							3	
						12 3 5		
*	0 * 1	*	ck4 ck5 kc8	*	6	*	*	*
			ck1					

			kk3				
					10	11	4
			kc2				
					8		
			kk2		7		
							2
+	-1	+	+		+		(1) +
-----							
Measr -examinees +raters				-items		ABILI	
-----							

<그림 2> 구성·표현 영역의 단면 분포

<그림 1>에서 ck2는 가장 관대한 채점자이고, kc5는 가장 엄격한 채점자다. 양자의 엄격성 차이는 약 1.5logits이다. 또한 <그림 2>에서는 ck2가 가장 관대하고, kk2가 가장 엄격하다. 양자 간 편차는 3logits 이상이다. <그림 1>과 <그림 2>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림 2>가 <그림 1>보다 채점자 간 편차가 더 넓고, 채점자의 엄격성 분포도 더 분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관대하고 가장 엄격한 채점자 간 편차라는 측면에서 문법 영역이 구성·표현 영역보다 차이가 작게 나타난다. 또한 채점자들도 문법 영역에서 서로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음의 <표 2>과 <표 3>도 FACETS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이다. 문법 영역의 신뢰도[not inter-rater] 값은 .67이고, 구성·표현 영역의 신뢰도[not inter-rater] 값은 .74이다.<sup>15)</sup> 두 값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채점자 간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수치가

15) 이 표에서 제시된 신뢰도(Reliability)는 언어 평가에서 흔히 쓰이는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와는 다른 개념이다. FACETS 분석은 일정 정도 채점자의 엄격성 차이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제공해준다(王躍武·朱正才·楊惠中, 2006:71). 장소영·신동일(2009)에 따르면, 신뢰도가 낮은 값일수록 채점자 혹은 채점자 집단 간 비슷한 엄격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아, 2015:96 재인용).

높을수록 확실도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구성·표현 영역에서는 채점자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차이 검증의 결과 또한 문법 영역과 구성·표현 영역의 유의도(significance; probability) 값이 모두 .00이라는 점에서 채점자 간 채점의 엄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뢰도[not inter-rater]와 유의도(significance; probability)라는 두 수치를 종합해보면, 문법 영역이든 구성·표현 영역이든 상관없이 채점자 간 엄격성 모두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2> 문법 영역 FACETS 분석 결과

분리도 1.44	신뢰도 (not inter-rater) .67	유의도 (probability): .00
완전일치도: 54.6%    예상치: 50.4%		

<표 3> 구성·표현 영역 FACETS 분석 결과

분리도 1.68	신뢰도 (not inter-rater) .74	유의도 (probability): .00
완전일치도: 25.0%    예상치: 25.8%		

이밖에도 문법 영역의 완전일치도(Exact agreements) 값이 54.6%로, 예상치(Expected)인 50.4%를 무려 4.2%나 뛰어넘는다. 구성·표현 영역의 완전일치도 값과 예상치는 각각 25.0%, 25.8%이다. 이것도 채점자들의 문법 영역 점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FACETS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얻어낸 신뢰도(Reliability)·유의도(significance)·완전일치도(Exact agreements)·예상치(Expected) 등의 데이터는 단면분포도(그림 1·2)에서 얻은 직관과 완전히 부합한다. 즉 문법 영역에서 채점자들의 점수는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도 작다. 그 원인은 텍스트 문법의 평가 기준에 일정한 객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맞고 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구성·표현 영역의 평가 기준은 상대적으로 그것과 다른 주관적 요소를 띤다. 따라서 그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라기보다는 채점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은가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채점자들의 점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

## 4.2. 채점자 엄격성의 집단 간 비교

### 4.2.1. 문법 영역

#### (1) 모든 항의 전체 비교

이 부분에서 채택한 데이터 통계 방식은 Mann-Whitney U검증이다.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첫째, 이 방식이 비교적 적은 표본의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적합하다. 둘째, 본 연구의 각기 다른 집단은 표본의 양이 일정하지 않다. 중국인 채점자는 모두 11명(CC 6명, CK 5명), 한국인 채점자는 모두 19명(KK 9명, KC 8명)이다. Mann-Whitney U검증은 이처럼 양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준다.

<표 4> 중국인 집단과 한국인 집단 간의 Mann-Whitney U검증 결과  
(문법 영역의 모든 항)

#### Test Statistics<sup>b</sup>

	score
Mann-Whitney U	57.000
Wilcoxon W	210.000
Z	-1.721
Asymp. Sig. (2-tailed)	.085
<b>Exact Sig. [2*(1-tailed Sig.)]</b>	<b>.091<sup>a</sup></b>

a. Not corrected for ties.

b. Grouping Variable: group

<표 4>는 Mann-Whitney U검증이라는 방식을 통해 중국인 채점자 집단과 한국인 채점자 집단을 검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진하게 표기한 정확유의도(Exact Sig.) 값인 .091은 유의수준(0.05)보다 크다.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인 채점자 내부의 두 집단과 한국인 채점자 내부의 두 집단, 그리고 언어적 배경이 크게 다른 한족 집단과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 집단 간의 차이를 각각 검증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인 채점자 내부의 한족 집단과 조선족 집단(CC : CK)의 정확유의도(Exact Sig.) 값은 .792이고, 한국인 채점자 내부의 중국어를 모르는 집단과 아는 집단(KK : KC)의 정확유의도(Exact Sig.) 값은 .481이며, 중국인 채점자 내부의 한족 집단과 한국인 채점자 내부의 중국어를 모르는 집단(CC : KK)의 정확유의도(Exact Sig.) 값은 .142이다. 문법 영역 모든 항의 평가 결과를 보면,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채점자의 문법 영역 평가는 전체적으로 그 언어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2) 개별항의 집단 간 비교

앞서 문법 영역 16개 항을 검증한 결과로부터 그 원인이 문법 영역의 항이 지나치게 많아 각 집단 간 차이가 무의미해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정 문법항을 골라 검증을 진행한다. 다음 <표 5>는 3번항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5> 문법 영역의 집단 간 Mann-Whitney U검증 결과<sup>16)</sup>

	(CC+CK):(KK+KC)	CC:CK	KK:KC	CC:KK
1~16번항	.091	.792	.481	.142
3번항	.264	.247	.673	.224

16) 표 안에 열거된 데이터는 모두 정확유의도(Exact Sig. [2\*(1-tailed Sig.)]) 값을 가리킨다. 이하 모두 동일하다.

3번항의 검증 결과를 모든 항의 검증 결과와 비교해보면 정확유의도 값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게 나타난다. 하지만 모두 0.05보다 크다는 점에서 채점자가 개별 문법항을 채점할 때도 그 언어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결론, 즉 채점자가 문법항을 채점할 때 그 언어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학적 시각에서 모든 샘플에 대해 집단별 검증을 진행한 결과다. 그것이 개별 채점자의 채점에 자신의 언어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사후 인터뷰 과정을 통해 개별 채점자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어를 아는 한국인 채점자 kc2는 인터뷰 과정에서 지시사 부분의 채점을 할 때 중국어의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한다.<sup>17)</sup>

#### 4.2.2. 구성·표현 영역

문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구성·표현 영역의 전체항과 개별항은 구분된다. 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17) 1. 다음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지시어와 대용어의 사용을 살펴보고,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밑줄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괄호를 만들어 수정해 주십시오.

(제9항)

어느 하루가 지나가면서...

..... 대학교 2학년의 어느 하루, 우리 말하기 선생님께서 일이 생겨서 귀국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새로운 말하기 선생님이 오셨다. 남자분이었다. 난 그(이)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이)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다. ....

밑줄 친 부분에서 kc2 채점자는 학생이 정확하게 사용한 표현을 잘못 고쳤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 원인을 묻자, kc2 채점자는 중국어의 영향이라고 답한다.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시사 ‘這’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kc2 채점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다. 하지만 오랜 시간 중국 생활을 통해 고급 중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lt;표 6&gt; 구성·표현 영역에서 각 집단 간의 Mann-Whitney U검증 결과

	(CC+CK):(KK+KC)	CC:CK	KK:KC	CC:KK
전체항(1~12)	.175	.537	.888	.113
개별항(12) <sup>18)</sup>	<b>.019</b>	.931	.329	<b>.026</b>

## (1) 개별항의 집단 간 비교

비교 결과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12번항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채점자 집단과 한국인 채점자 집단 (CC+CK):(KK+KC)의 정확유의도 값은 .019이고, 중국 한족 채점자 집단과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 채점자 집단(CC:KK)의 정확유의도 값은 .026이다. 모두 0.05보다 작는데, 이것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채점자의 모국어(L1)가 채점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12번항에서는 채점자들에게 학생 작문 전체의 조직 구성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이 글은 전형적인 중국식 조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국어가 한국어인 채점자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sup>19)</sup> 이와 상반되게 모국어가 중국어인 채점자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18) 개별항의 통계 과정에서 kk6·kk8·kk9의 경우는 배제했다. 세 채점자 모두 12번항의 채점 근거를 보여주는 주관식 진술(코멘트)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kc6·kc7·kc8의 경우도 배제했다. 이 세 채점자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kc1~kc5와 다르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단지 중국 유학 생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식 텍스트 조직 방식에 대해서 더 관대하게 채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 예를 들어, kk1, kk3, kk7은 각각 1점, 3점, 2점을 준다. kk1은 “단락 구분이 너무 산발적으로 빈번하게 되어 있어 가독성이 일단 많이 떨어진다. 또한 글의 유형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줄임표현과 명사로 마무리가 되는 문장들의 연결 또한 자연스럽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문장 서술과 묘사 부분을 나누어 기술을 하였으나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의 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일단 글의 전개 구조 자체가 너무 펼쳐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kk3은 “글 자체와 그 내용은 아름답습니다만 형식면에서 볼 때, 한국어에서 산문 사이에 운문이 삽입된 형식의 글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운문으로 쓰인 부분을 완결된 문장으로 써서 각각 관련된 문단의 내용과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k7은 “한국어로 쓰는 글의

평가한다.<sup>20)</sup> 이로부터 중국인 채점자들이 텍스트 조직 구성을 평가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KK:KC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 채점자 집단 내부에서는 중국어의 숙지 여부가 채점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kc1 채점자의 경우, 12번항의 채점 근거에 대한 주관식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 형식을 문장에 삽입하는 방식은 중국 문장의 전통적인 방식 중 하나인데, 짧은 글에 지나치게 많은 시를 넣은 점이 문제다. 시의 형식과 내용이 전체 글을 압도하고 있어 수필문의 구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이처럼 채점자는 중국어 글쓰기의 관습적 형식을 이해하고 있지만 학생이 한국어 글쓰기에 이러한 형식을 차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구성·표현 영역의 12번항을 평가할 때, 한국인 채점자들의 중국어 숙지 정도는 채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들의 평가 과정에서는 모국어 배경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CC:CK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중국인 채점자 집단 내부의 한족 채점자와 조선족 채점자 간 분명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선족 채점자는 일반적으로 제2언어 학습자인 한족 채점자와 다른 이중언어 화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들의 채점 결과는 한족 채점자의 그것보다 한국인 채점자의 그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와 채점 근거의 주관식 진술을 살펴보면, 5명의 조선족 채점자 가운데 ck5

---

형식과 다른 낯선 형식(중국어에서 시를 섞는 방식이 유용된 듯)이다.”고 평가한다. 20) 예를 들어, cc2는 “글의 구성이 조직적으로 엄밀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글의 앞뒤가 서로 호응하고, 마무리 부분에는 여운이 남아 있다.” cc6은 “기억과 회상이라는 정서적 시간축을 따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독자를 필자의 감정 세계로 인도한다. 주제가 일관되고, 시적 정취가 차고 넘치며, 심금을 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생의 깨달음 모두를 행간 안에 녹여내 독자도 함께 느끼고 상상하게끔 이끈다.”고 평가하면서 두 채점자 모두 5점을 준다. 그리고 cc1은 “전체적으로 결론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4점을 준다.

채점자만이 12번항 평가에서 중간대 점수를 책정하면서 중국 학생의 텍스트 구성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sup>21)</sup> 나머지 4명의 채점자들은 비교적 높은 점수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한쪽 채점자들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서 한국인 채점자의 그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 (2) 전체항의 집단 간 비교

<표 6>을 통해 구성·표현 영역의 전체항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개별항(12번항)의 검증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항 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설문지 설계의 자체 결함이다. 설문을 설계할 때, 구성·표현 영역은 모두 12개항이고, 그 중 글의 마무리 구성 방식을 측정하는 것이 5개항이다. 마무리 구성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글의 전문을 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문지의 분량을 고려해 마지막 2~3개 단락만을 제시했다. 채점자들이 전문이 부재한 상태에서 채점과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2)</sup>

둘째, 채점자의 관심 지점이 상이하다. 이것은 신뢰도 측면에서 쓰기 평가가 줄곧 문제된 지점이기도 하다. 실제 쓰기 채점을 진행하기 위해 채점자에게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주시시키고, 채점자에게 별도의 관련 교육을 진행했음지라도 채점자들의 상이한 관심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와 채점 근거의 주관식 진술을 통해 파악된 사

- 
- 21) 이 채점자는 비교적 오랜 시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2) 전체 설문지는 13장으로, 상당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채점자들에게 문법 영역에서는 채점과 수정, 구성·표현 영역에서는 채점 근거에 대한 주관식 진술을 요구했다. 설문지의 분량이 더 많았더라면 채점자들이 쉽게 피로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례는 다음과 같다. 구성·표현 영역 1~3항의 단락 조직 문제에 대해 어떤 채점자는 전체적인 전개 구조에 관심을 갖고, 다른 채점자는 ‘한 문장으로 한 단락을 구성’하는 문제와 같이 세부적인 것에 주목한다. 또한 구성·표현 영역 9~11항의 수사 기법 부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다. 어떤 채점자는 내용 전개의 수단으로서 의문문(또는 설문법)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sup>23)</sup>, 다른 채점자는 의문문의 문법적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

채점자의 상이한 관심 지점이 채점에 끼칠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구성·표현 영역 1~3항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진행한다. 이 검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총체적 평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관심 지점을 공유하는 채점자 데이터<sup>24)</sup>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7> CC:KK 단락 조직 부분의 Mann-Whitney U검증 결과

단락 조직	1번항	2번항	3번항	1~3번항
총체적 평가	.247	.247	.931	.126
이어지는 단락·강조 단락	.229	.229	<b>.057</b>	<b>.057</b>

<표 7>의 데이터는 CC와 KK 채점자 집단 전체의 채점 결과로서 유의

23) 설문법[設問句]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설문법을 사용한 텍스트가 하나의 좋은 글쓰기의 규범이 된다는 사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중국인 학습자 개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문법은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 또는 전개하기 위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한국인 독자가 설문법이 적용된 중국인 학습자의 텍스트를 보면서 의문문의 형식이 너무 많이 또는 자주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한편, 한국어 텍스트 구성 원리에 중국어의 설문법과 유사한 수사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독자에게 해답을 생각하게 만드는 설의법(設疑法)과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는 문답법이 그것이다. 중국어의 설문법은 이러한 한국어의 설의법과 문답법 두 가지가 합쳐진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제효봉, 2015:236 참조).

24) cc2·cc4·cc5·cc6·kk1·kk2·kk3은 모두 이어지는 단락과 강조 단락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관심 지점을 갖는 채점자, 즉 단락 조직 가운데 이어진 단락과 강조 단락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채점자들이다. 이들의 3변항 정확유의도 값은 .057이고, 1~3변항 정확유의도 값은 .057이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학적 의미에서 두 집단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채점 근거에 대한 채점자들의 주관식 진술을 통해서도 두 집단 간에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변항의 텍스트 마지막 부분인 11)~14) 단락의 사례를 들면<sup>25)</sup>, 이 부분은 네 개의 배비구(排比句)<sup>26)</sup>가 각각 단독으로 단락을 구성하면서 강조 기능을 수행한다. 배비구와 강조 단락은 중국어 특유의 수사 기법이자 단락 조직 방식에 해당한다. KK 채점자들은 이것을 생소하게 느끼지만 CC 채점자들은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한 KK 한국인 채점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하나로 수렴된다. 즉 네 개의 구를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으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반면, CC 중국인 채점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통일적이다. 즉 11)~14) 단락을 하나의 구로 각각 구성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사후 인터뷰

### 25) 제3항 <논설문>

#### 양심

…… [설문지에 1)~10) 단락이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 11) 보다 더 의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 12) 보다 더 후회 없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 13) 보다 더 성실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 14) 우리 함께 양심으로 굳고 말하며 생각하자!
- 26) 배비구는 중국어 수사법의 하나로, 의미가 연관되어 있으면서 구조도 유사한 3개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을 나열하는 표현 방식이다.
- 27) kk2는 “4)~6), 10)~14)는 한 단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kk3은 “6), 11)~14) 하나의 문장으로 단락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용에 따라 2)~6)을 한 문단으로, 7)·8)을 한 문단으로 묶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론(1), 양심 있는 행동(2~6), 양심 있는 말(7·8), 양심 있는 생각(9·10), 결론(11~14)”을 제시한다.



에서 중국인 채점자 cc2는 이러한 구성에 대해 “괜찮고 돋보인다. 짧은 구를 통해 감정의 끌어올리고 있다.” cc5는 “배비구가 강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설명들은 CC 중국인 채점자들이 이 부분을 평가할 때 모국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사실 이들은 중국어의 단락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채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차이의 검증 결과가 .057라는 점에서 KK와 CC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못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CC 집단 내부의 개별 채점자가 다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cc4 채점자는 “(11)~(14) 단락을 가능한 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평가한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채점자가 한국어 학습자(즉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모국어 영향 관계가 뚜렷한)을 평가할 때, 채점자의 언어 배경이 그 평가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있다. 우선 다국면 라쉬 모형을 통계적으로 적용한 FACETS 프로그램을 통해 문법 영역과 구성·표현 영역에서 채점자들의 엄격성을 살펴보면, 문법 영역보다 구성·표현 영역에서 채점자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구성·표현 영역보다 문법 영역의 평가 기준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둘째, 채점의 엄격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는 문법 영역과 구성·표현 영역별로 전체향과 개별향의 집단 간 차이성을 검증한다. 문법 영역의 경우, 전체향의 검증이나 개별향의 검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중국인 집단(CC+CK)과 한국인 집단(KK+KC) 간, 중국인 내부의 두 집단(CC:CK) 간, 한국인 내부의 두 집단(KK:KC) 간, 그리고 언어적 배경의 차이가 가장 큰 중국 한족 채점자 집단과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인 채점자 집단(CC:KK) 간 검증 결과와 모두 동일하다.

이처럼 채점자가 문법 영역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언어적 배경

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채점자의 모국어가 중국어이든 한국어이든 상관없이 현저한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영향 관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개별 채점자의 경우 사후 인터뷰 과정을 통해 채점자의 모국어가 중국어는 아니지만 중국어의 숙지 정도가 한국인 채점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준의 차이는 문법 항목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비원어민 채점자가 문법 항목을 평가할 때, 자신의 한국어 수준이 평가에 반영된다. 다시 말해서 문법 항목에 대한 평가의 엄격성은 채점자의 한국어 수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지만 한국어 수준이 문법 항목의 평가 차이를 가늠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cc1의 엄격성이 kc1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cc1의 모국어는 중국어이고, kc1의 모국어는 한국어다. 따라서 cc1의 한국어 수준이 kc1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동일하지 않은 채점자의 점수가 어떤 항에서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채점자의 한국어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c6은 한족 집단에서 가장 관대한 채점자이고, kc1은 중국어를 아는 한국인 집단에서 가장 관대한 채점자다. 두 채점자는 문법 영역의 16개항에서 8개항의 점수는 모두 동일하다. 11번항을 예로 들면 설명하면, 두 채점자의 점수는 모두 5점이다. 하지만 다른 KC 채점자들의 점수는 모두 1점이고, CC에서 cc2 채점자를 제외하면 모두 1점이다. 사후 인터뷰 과정에서 cc6 채점자는 자신이 5점을 책정한 이유로, 한국어능력의 부족과 중국어 영향을 들면서 자신은 학생 작문에서 문법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반면, kc1 채점자는 자신의 모국어가 한국어임에도 문법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오랜 시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평소 접하던 중국학생의 작문과

비교해보면 이 텍스트 전체적으로 아주 잘 쓴 것이다.”라는 평가에서처럼 문법적 정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와는 다르게 구성·표현 영역에서는 전체항과 개별항을 검증할 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다. 전체항 검증에서는 각 집단 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글의 구성 방식’이라는 항의 평가 결과를 별도로 검증했을 경우, 중국인 집단(CC+CK)과 한국인 집단(KK+KC)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족 집단(CC)과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 집단(KK)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채점자들이 ‘글의 구성 방식’이라는 부분을 평가할 경우, 자신의 언어 배경인 모국어(L1)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전체항과 개별항의 검증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설문지 설계의 자체 결함과 채점자의 관심 지점이 상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부터 CC 집단과 KK 집단에서 관심 지점을 공유하는 채점자들이 진행한 단락 구성의 평가를 검증한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에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사후 인터뷰나 채점 근거의 주관식 진술을 통해 증명된다.

또한 한국인 내부의 채점자 집단(KK:KC)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항이든 개별항이든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성·표현 영역을 평가할 때 한국인 채점자가 중국어의 숙지 정도와 무관하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중국어에 숙달한 채점자일지라도 텍스트 구성 방식 및 표현 기법에 대해 판단할 경우, 자신의 모국어(L1)가 결정적 작용을 한다.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 화자인 조선족 채점자의 경우, 중국어에 대한 숙지 정도를 보면 그들에게 중국어는 모국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인 채점자 내부의 두 집단(CC:CK) 간 비교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전체항이든 개별항이든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글의 구성 방식’과 같은 개별항에서 조선족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와 채점 근거는

한국인 채점자 집단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한족 채점자들과는 유사한 형태를 드러내는데, 이로부터 조선족 채점자들이 채점을 진행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 영역의 평가에서 채점자들의 언어적 배경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구성·표현 영역의 평가에서는 채점자들의 언어적 배경이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인 채점자들은 학습자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한국인 채점자들은 자신의 모국어(L1)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것은 단어와 문법이 비교적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텍스트 구성 방식 및 표현 기법은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모국어(L1)의 텍스트 구성 방식 및 표현 기법의 관련 지식과 활용 경험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상당히 견고한 형태로 남아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모국어 영향의 견고성은 사후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cc4 채점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채점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한국어에서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국어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모국어 영향으로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원래 한국어 쓰기 규범에 따르면 2~3점 정도를 줘야겠지만 글의 의미가 중국어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점 정도를 준다.”고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문법 영역과 텍스트 구성 영역을 구분해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채점자가 학생 작문을 채점할 때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의 주안점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원어민 채점자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부의 문법과 조직 구성 등의 문제를 동시간대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비원어민 채점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그들은 대부분 제2언어 학습자로서 문법 영역의 지식보다 텍스트 구성 관련 지식과 능력을 상대적으로 늦게 습득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중국의 한국어교육 일선에 자

리한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한국어 텍스트 구성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많은 경우 학생 작문에 대해 맞춤법-단어-문법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채점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4 채점자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작문을 채점할 때, 주로 단어나 문법적 문제점을 검토할 뿐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의 측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학년의 작문을 채점할 때 판단이 어려운 문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표현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학년의 작문 채점은 학생 본인과 토론을 진행하거나 학생에게 한국인 교사의 작문을 권고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비영어민 채점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중국어 텍스트 구성 방식 및 표현 기법의 관련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은국(2014). 조선어 전공4급 시험에 대한 고찰-2013년에 실시된 조선어 전공4급 시험을 중심으로, <제24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11쪽~521쪽.
- 김성숙(2011). 학문 목적 기초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5차 전국학술대회논문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5쪽~185쪽.
- 김현아(2015).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 요인에 따른 채점 경향 분석-원어민 및 비영어민 채점자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6쪽~103쪽.
- 왕단(2016). 중국에서의 외국어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2002~2013년 영어, 일어, 한국어 평가 연구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016년 · 통권11호(태학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59쪽~292쪽.
- 왕효성(2012ㄱ). 한국어 글쓰기 과정에서의 모국어 사용-중국인 대학생들의 생각 말하기(think-aloud)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48호, 이중언어학회. 243쪽~272쪽.
- \_\_\_\_\_ (2012ㄴ). 한국어 글쓰기 과정에서의 언어전환(Language-switching) 양상-중국인 대학생들의 생각 말하기(think-aloud) 자료를 바탕으로, <새국어교육>

- 9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05쪽~134쪽.
- 이향(2013).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발음 영역 채점에서의 채점자 특성에 따른 채점 경향 연구-한국어 교육 경험과 전공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9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13쪽~245쪽.
- 제효봉 (2011 ㄱ).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과정 고찰-단락 구성과 모국어의 영향 관계,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231쪽~259쪽.
- \_\_\_\_\_ (2011 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표현 사용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48호, 국어교육학회. 257쪽~286쪽.
- 제효봉(201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조인옥(2013). 모국어 작문의 특성이 한국어 작문에 미치는 영향-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49쪽~384쪽.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2009).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 현빈 · 최재찬(2014). 평가 기준 상세화가 쓰기 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한국어능력시험Ⅱ 쓰기 영역 자유 작문 문항을 대상으로, <제24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2쪽~263쪽.
- 徐鷹(2014). CET-4作文評分人評分標準使用情況研究, 《浙江外國語學報》 2014年3月第二期. 39쪽~46쪽.
- 王躍武 · 朱正才 · 楊惠中(2006), 作文網上評分信度的多面Rasch測量分析, 《外語界》 (Foreign Language World)2006年第1期(總第111期). 69쪽~76쪽.
- 陸遠(2010), 網閱環境下的英語專業四級考試作文評分員偏頗研究,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 Cumming, A., Kantor, R. & Powers, D. E. (2001). *Scoring TOEFL essays and TOEFL 2000 prototype writing tasks: An investigation into raters' decision making and development of a preliminary analytic framework*(TOEFL Monograph Series, MS-22).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Johnson, J.S. and Lim, G.S. (2009). The influence of rater language background on writing performance assessment. *Language Testing*, 26(4), 485-505.
- Kobayashi, Toshihiko. (1992). Native and nonnative reactions to ESL compositions. *TESOL Quarterly*. 26(1), 81-112.
- Shi, Ling. (2001). Native- and nonnative-speaking EFL teachers' evaluation of Chinese students' English writing. *Language Testing*, 18(3), 303-325.

### 〈부록〉

#### 설문 항목의 예시

##### \* 영역 1)의 제1-8항:

다음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어색한 내용이나 표현이 있으면 진하게 표시하시고, 괄호를 만들어 수정해 주십시오.

(제2항)

(제목 없음)

…… 몇 달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걷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주위에는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 지 묻자, 할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장병이 있으신데 병원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하셨다. 그 남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

(제3항)

어느 하루

……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가족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져 입원하셨다고 했다. 내가 걱정할까봐 알려 주지 않았다고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병상에 누워 주무시는 아버지를 봤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마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그렇게 정정하셨던 아버지가 어찌다가 그렇게 마르셨을까? 고작 일 년 밖에 안 지났는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창백해졌을까?“아빠, 제가 왔어요. 많이 배우고 돌아왔어요. 아빠.”……

(제5항)

아름다웠던 그날 덕분에

지금 북경은 봄날이 한창이다. 북경의 봄날은 언제나 아이의 얼굴처럼 변덕스럽다. 어떤 날은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한다. 그날은 바로 2007년 봄날 중에 하루였다.

한국어과 재학 중이었던 같은 반 친구 중에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다. 이름은 황철이다. 우리는 매일 쌍둥이처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수업을 듣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붙어 다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사이는 완전히 변했다. ……

(제6항)

양심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며 언니의 동생이다. 나는 선생님들의 제자이며 친구들의 벗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이며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언제나 양심을 갖고 작은 일도 진심을 다해 해 왔기 때문이다. ……

\* 영역 1)의 제9-16항:

(1) 다음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지시어와 대용어의 사용**을 살펴보고,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밑줄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괄호를 만들어 수정해 주십시오. (예시 생략)

(2) 다음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문장 간 접속**이 어색하거나 **시간적 전개상**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밑줄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괄호를 만들어 수정해 주십시오.

(제16항)

인생의 거울을 갖다

.....

그 다음 학기에 나는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잠도 필요없다는 듯 문제를 밤새 풀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실수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 끝까지 노력하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싶다.

한 학기 후에 나와 같이 내려갔던 친구와 함께 우등생반으로 돌아온 나에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잘했다! 실수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

\* 영역 2)의 제1-12항:

(1) 다음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논설문과 수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제시된 **단락의 구성**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코멘트)해 주십시오. - 코멘트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제1항. <논설문>

양심-“효”를 좌우하는 요인

1)이 세상의 가지각색 사람들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올바른 사람, 양심이 그릇된 사람이 있다. 대체로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한 축에 속한다. 양심이 없는 사람과 양심이 그릇된 사람이 한 축에 속한다. 이 두 축을 구별하는 현저한 분계선은 “효”가 아닌가 싶다.

2)중국과 한국은 유교사상 중의 “효”라는 사상을 숭배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 사상을 줄곧 여러 사상중의 주류사상이다. 뿐만 아니라 “효” 사상은 이미 한 사람을 평판하는 기준이 되었 있다. 그럼 “효”를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양심이 아닐까 싶다.

3)먼저 중국 사회를 살펴보자.

4)중국은 급속하게 발전하건만 옛날에 전해온 미풍양속은 고스란히 물려받아가고 있



다. 특히 유대한국교육기공자가제창한“효”사상은이미사람들의마음속으로깊이들어갔다. 그러나 경제화의 소용돌이에 사람들이 (“효도”)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왜 그랬을까? 돈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양심이 점점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사람의 양심이 변질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질하기 십상이다.

……(5)-(6)

7)또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다. “모든 일중에서 “효”는 제일위이다”. 그리고 이“효”의 결정적 요인은 바로 양심이다.

8)동아시아이권에 속한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이다.

……



코멘트: \_\_\_\_\_

(2) 다음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코멘트)해 주십시오. - 코멘트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제5항.

어느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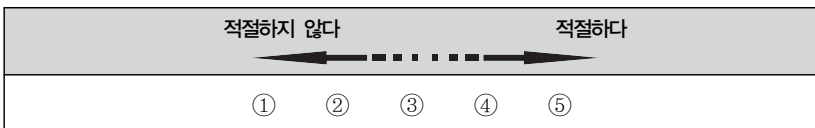
……

나는 살금살금 남편의 얼굴을 보고 키스를 했다. 남편은 나를 보며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랑하는 힘을 문득 받았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남편과 헤어지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 그냥 함께 편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날은 내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인생은 끝까지도 당신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

인생은 끝까지도 두 사람은 함께 해야 한다.

인생은 끝까지도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다.



코멘트: \_\_\_\_\_

(3) 다음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의문문**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코멘트)해 주십시오. - 코멘트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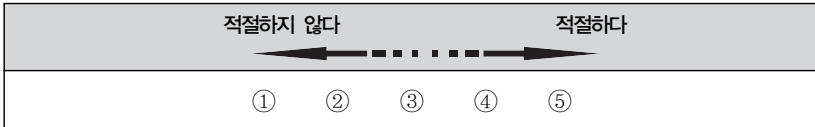
제9항.

어느 하루가 지나가면서……

어느 하루 일어나서 본 나무에 새로운 싹이 돋았다. 아직 하루도 안 된 것이지만 눈으로 보기에 하루면 변해질 수 있는 것 같다. 세계는 이렇게 신기하다. 어느 하루 만에 나는 한국말을 조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해도 못했는데? 어느 하루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하루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번데기부터 나비가 되가는 과정이 모두 있다. 이 신기한 어느 하루부터 시작해 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맞들었다.

……

어느 하루가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의외라고 생각한다? 어느 하루가 지나면 우리 학생들이 예쁜 나비가 되어 자유자재로 날 수 있다. 생활 중에 있는 일을 통해 특이한 하루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어느 하루가 지나면서 나의 지식이 많아졌다. 어느 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직원답게 행동해졌다. 어느 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높은 자리에 서 있다. 어느 하루를 인생 중에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으로 보고 한걸음 한걸음 걸으면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코멘트: \_\_\_\_\_

(4) 다음 글은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에 있는 학생이 작성한 것입니다. **글의 구성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코멘트)해 주십시오. - 코멘트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제12항.

초여름의 인연

초여름에는 꽃이 예쁘게 핀다.  
 초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  
 초여름에는 폭풍우가 무정하게 몰려온다.  
 초여름에는 태풍이 거세게 휘몰아친다.  
 초여름과 인연이 있는 것 같다.  
 21년 전 그 해 초여름. 비가 많이 온 그 초여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머니

께서 너무 슬퍼서 많이 우셨다. 내가 좀 불안 해서 그랬는지 곧 태어나려고 그랬는지 계속 어머니 뱃속에 버둥거렸다. 나의 출생은 가족들에게 처음에는 큰 부담이 됐지만 곧 그들이 희망이 되었다. 나는 가족들과 인연이 있다. 나는 이 세상과 인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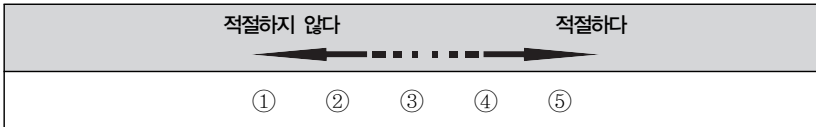
6살 그 해 초여름. 친한 친구네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 그 아이와 나는 자주 놀러 갔던 언덕에 가서 올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귀뚜라르 노래하는 귀뚜라미  
 솜털 달린 입에서 나오는 멋진 휘파람  
 강가에 발가벗은 소년들

7살 그 해 초여름. 방학 후 친구들이랑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숲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너무 두려워서 벌레 소리에도 덜덜 떨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송글송글 땀을 흘리시는 부모님을 보고 막 울었다.

(중략)

5년 후에 그 초여름……  
 25년 후에 그 초여름……  
 50년 후에 그 초여름……  
 꽃이 예쁘게 필 것이다……  
 풀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폭풍우가 무정하게 몰려올 것이다……  
 태풍이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그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코멘트: \_\_\_\_\_

208 이중언어학 제68호(2017)

제효봉(齊曉峰 Qi, Xiao-feng)

북경외국어대학교(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한국어학과  
北京外國語大學亞非學院韓國語學科, 100089.

전화번호: 0086-10-88816711

전자우편: qixiaofeng008@hanmail.net

장배흔(張培欣 Zhang, Pei-xin)

하문대학교(Xiamen University) 외국어교육학부  
廈門大學外文學院外語教學部, 361005.

전화번호: 0086-592-2186922

전자우편: zpxenglish@126.com

접수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9월 7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18일